

“나태와 방일로 삶을 허비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인과(因果)를 모르고 연기(緣起)를 모르는 바보이다.”

-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제 841호 2011년 6월 22일 수요일 (음력 5월 21일 · 불기 2555년 · 주간)

## 주5일 대비해야

내년부터 전면 실시... 소외계층부터 살펴야

‘놀토(쉬는 토요일)’가 한국불교의 신행형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정부는 6월 14일 2012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이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일요보호는 물론 성인들의 법회 시간과 주말 프로그램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원 이사장 심상 스님(부산 흥법사 주지)은 “주5일제는 한국 사회의 지각변동이다. 단순히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개인사찰의 변화가 아니라 종단 차원에서의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5년 주5일 근무제 도입, 2006년 격주 주5일 수업제 도입은 가정과 직장, 여가나 취미생활에 변화를 가져왔다. 놀토에는 놀이동산·리조트 업계·테마파크 등이 20~30% 이상 매출을 올리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다. 불교계에서도 주5일제 시행 이후 템플스테이나 각종 신행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었다.

주5일 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정부에는 토요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특기적성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보다 다양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이 요구될뿐더러 사교육 시장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종교계, 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김성천 사교육없는세상 부소장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이나 사회적기업 등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사와의 협력구조를 이루고 학생들의 독서, 체험, 진로 등을 통해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에서는 명상, 문화재 탐방, 사찰 체험, 템플스테이 등을 중심으로 진행해오던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

### 어린이 법회 등 바뀌고 템플스테이 등도 개별 가족단위 신행도 중요

원회(위원장 계성, 이하 위원회)는 동원이 주관하는 ‘배낭메고 문화유산을 찾아서’ ‘마음성장 드림캠프’, 명상프로그램 ‘나를 찾는 선’,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가 주관하는 ‘청소년문화제지킴이’ 등을 학교와 연계해 정착 확산할 계획이다.

유진상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사무과장은 “교계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에 맞춰 프로그램을 재정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영 기자

주5일제에 따라 학부모들은 가정형편과 교육여건에 따라 주말 교육의 질적 차이, 가정경제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계 프로그램을 보다 질적으로 차별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동원 이사장 심상 스님은 “지금처럼 진행한다면 템플스테이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가족이나 학생들이 매주 여행을 가져다 체험활동에 참여 하기는 힘들다”며 “도심사찰을 중심으로 주말에 가족단위나 개인 신행프로그램, 일반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교적인 색채가 가미되지 않은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 우곡선원 부설 심성(인성)교육기관인 우곡심성교육원은 명상프로그램에 불교적인 색채를 빼 종교를 초월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도법사인 송승 법사는 “포교를 한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불교적인 것을 강요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근본 인성양성과 순수함을 회복한다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국대 교육학과 고진호 교수는 “포교에 급급해하지 말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불교의 대사회 기여도와 인지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한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종)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6월 16일 태릉선수촌 오륜관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대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혜종 스님, 신홍사 주지 우송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년 스님,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 강원도 최문순 지사 등을 비롯한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국민의 90% 이상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3·7기도를 통해 한마음으로 모이면, 평창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유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재서명 추진한다

불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됐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의 청구가 재추진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 등에 따르면 5월 20일 제출했던 서명부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검토 작업 중 주민번호 오류, 중복 서명 등으로 무효 처리된 서명지가 다수 발견됐다.

종자연과 참여불교재가연대 등은 추가 서명기간인 6월 22~26일 사이에 유효 서명 추가 1만명 확보에 나선다. 박기범 기자

### 선재 스님·강성용 교수 올해의 불이상 수상, 7월 5일 시상



선재 스님



강성용 교수

올해의 불이상 수상자에 선재 스님과 강성용 서울대 교수가 선정됐다. 여성 불자 모임인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6월 15일 제26회 불이상(不二賞) 수상자로 실천분야에 선재 스님(善材·56·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 연구분야에

강성용 교수(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HK 조교수)를 선정했다. 불이상 심사위원회(최병현 전 서울대 교수는 선재 스님의 사찰 음식을 통해 한국 음식 세계화를 이끈 점과 강성용 교수의 인도 초기 불교 연구를 통해 한국 불교 학계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수상자에게는 각 20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부상으로 주어지며, 시상식은 7월 5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노덕현 기자

### 841호 CONTENTS

현장속으로 5 문수 스님 1주기 추모 낙동강 순례



불교리더십을 말한다 16·17 우학 스님



특집·사경 경전을 쓰기만해도 부처 23



**농인당당**  
농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장품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 “템플스테이 직접 체험해보시라”

자승 스님, 청와대 찾아 MB에 권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6월 13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회장 자격으로 청와대를 찾아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

자승 스님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부가 근대유산을 포함한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인식

하고 보전·발전에 노력해 줄 것과 다종교·다문화 사회에서 서로가 화합·상생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자승 스님은 “대통령께서 인기 내에 템플스테이·처치스테이·향교스테이 등 각 종교별 문화를 직접 체험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종교간 화합·상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에 종교계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사회정의를 논한다 29일, 6월 대토론회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는 6월 2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회정의의 실현과 자비실천’을 주제로 한국 불교중흥을 위한 6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박병기 한국교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박 교수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전문위원과 불교생명윤리연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정의의 문제를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 등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조동섭 기자

### 법정 스님 등 종교계 거목을 만난다

맑고향기롭게(이사장 현장), 대화문화아카데미(원장 강대인),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소장 고준석 신부)는 6월 30일 오후 2시 30분 명동대성당 포스트홀에서 ‘참종교인이 바라 본 평화-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 법정 스님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와 함께 활동한 다른 종교계 인사들이 세 인물의 삶과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나은 기자

### 108염주 만들기 수행 캠페인

108배는 한 배 올릴 때마다 참회하여 108번뇌를 소멸시키는 수행법입니다. 한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서 한번 절을 할 때마다 염주알을 한 알씩 꿰어 108염주를 만들면서 자신의 마음을 밝혀 보십시오. 업장이 소멸되고 공덕이 높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만의 108염주를 만들어 보십시오.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개인의 기도 수행에 적합합니다. 문의 :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02)2003-8213

## 찬 덕 불 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 아름다운 등

팔각접등영가등

극락왕생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중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kwh (인동용 LED전구)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빛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흥온사

운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